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

-Association of standardized patient educators (ASPE) 연례학회에 다녀와서-

김종훈

ASPE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표준화환자 교육자들의 모임으로 매년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적용 사례 등의 정보를 나누고 있다. 6회째를 맞는 금년에는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나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대회가 열렸다. 필자는 2003년에 표준화환자 program을 배우기 위해 ECFMG의 international fellowship of medical education이라는 program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아 1년간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 연수 후에 한국에 돌아와 시행한 여러 표준화환자 관련 연구 결과도 발표하고 새로운 기법도 배우며 미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작년과 올해 이 학회에 참가하였다. (2005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포스터만 보냈다.)²⁾

작년에는 필자가 유일한 한국인 참가자였는데 올해는 강원대에서 3명, 건국대에서 1명이 참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약 300 여명이 참가한 대회였다. 첫 번째 초청강의는 UC San Diego

의 부교수로 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의 director로 있는 Peggy Wallace, PhD가 "How we are humanizing medical education"이라는 제목으로 의학교육에 표준화환자가 도입됨으로써 의학교육이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역설하였으며, 그만큼 표준화환자와 그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강의는 작년에도 강의를 한 바 있는 토론토대학의 부교수 Brian Hodges, MD가 "Possibility, priorities and power: Shaping the SP profession internationally"라는 제목으로 Anglo-Saxon의 문화에서 탄생한 SP profession이 의학교육의 competence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왜 psychometrician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지 역설하였다. 사실 우리의 의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필자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의학교육도 우리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강의를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재미있었

김종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120-752)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전화 : 02-2228-2418, 팩스 : 02-364-5450

다. 예를 들면, 독일은 거의 최근까지도 6년 동안 임상실습 없이 강의만 실시하였고,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는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창안되었지만 정작 이 나라는 국가시험에 OSCE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프랑스에는 학생들의 국가시험을 돕기 위한 사설학원이 있다. 또, 덴마크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아예 없으며, 프랑스의 경우 입학시험은 있지만 졸업시험은 없다고 한다. Hodges 박사는 이런 환경에서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여러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 George Washington 대학의 BJ Blatt 교수는 6개 station으로 이루어진 clinical skill 시험에서 마지막 3 station의 경우 학생이 환자 진찰을 끝내고 station 을 나온 후에 station 밖에서 생각을 정리한후 (reflection) 다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것이 실제로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reflection을 한 학생의 성적이 많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학생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의학적 의사 결정, 환자교육, 학생 및 환자 만족도, 임상적인 사실감이 증대되었다고 답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필자도 새로운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한 번 시도해 보직 하다고 생각했다. UT Medical Branch의 K Szauter 교수는 흡연이나 비만 증례에서 행동교정을 통해 금연과 감량을 유도하는 사례를 각각 만들고 학생들을 두 군으로 나누어 한 학생이 둘 중에 어느 한 사례의 표준화환자를 만나게 하여 두 군 간의 수행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비만 사례에 비해 흡연 사례에서 필요한 정보

를 더 잘 얻어냈다고 보고하였다. 대단한 것은 채점자에 따른 편견을 없애기 위해 Szauter 교수가 187개 이르는 표준화환자와 학생간의 만남을 담은 video를 오로지 혼자서 관찰하고 채점하였다는 것이다. Szauter 교수는 필자의 미국연수 시절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이 연구 외에도 생화학을 위해 CD로 제작한 소아 당뇨 PBL module에서 표준화환자 (환자와 엄마가 함께 출연)가 연기한 비디오를 이용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필자가 생화학 같은 기초의학 module에 굳이 표준화환자를 삽입한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 생각에 아무리 기초 의학이라고 해도 의사는 항상 '환자'라는 인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학년에서부터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최근까지도 표준화환자의 활용은 의대생 교육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됨을 느끼고 있는데 필자가 미국 연수 시절 UT Houston의 표준화환자 center에서 표준화환자를 훈련시켜 비밀리에 전공의가 담당하는 외래진찰실에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전공의는 자신이 평가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재 환자를 보게 된다. 이번 학회에서는 의과대학의 한계를 넘어 보건의료 전반에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을 확대한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치과대학은 물론이고 간호대학, 약학대학, 척추의과대학(chiropractic) 심지어는 수의과대학에서도 표준화고객(standardized client)이라는 개념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평가한다는 발표를 들었다.

얼마 전까지도 ASPE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자들만 참여하는 대회였으나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네덜란드 Maastricht 대학의 Rethans 교수(필자는 작년에 이어 올

해도 만나 서로의 경험을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미주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독자 모임을 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이미 유럽교육학회에는 표준화환자 프로그램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ASPE를 보다 국제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 캐나다를 제외하면 6개국에서 10명이 참여하여 round table meeting을 갖고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13개국에서 17명이 참여하고 미국, 캐나다 회원들 중에서도 국제모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명이 참여하여 이 모임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은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에서도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에 관한 한 가장 선진국에 근접해 있으며 필자가 몸담고 있는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서울 경기 컨소시엄'이 아시아권에서는 국제적 협력관계를 만드는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도 매년 ASPE에 포스터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2편을 발표하였다. 한 편은 표준화환자가 학생을 만난 다음 학생과의 면담에 대해 구두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4학년을 대상으로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8개의 증례를 이용하여 시험을 본 결과로, 어

느 한 증례의 점수와 다른 증례의 점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상관관계가 매우 약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한 두개의 증례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고 다양한 증례를 이용해야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4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의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사실 의사시험은 자격시험인데 의사의 자격을 논할 때 의학적 지식은 물론 지식의 현장적용 능력, 환자나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와 같은 덕목도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다만 어떤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적절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인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준비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시험의 핵심에 표준화환자가 있다. 반드시 국시에 반영되어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단지 지식의 전수가 아닌 그들이 바른 태도와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평가뿐만 아니라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진국의 의과대학들은 이와 같은 교육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선진국이 시행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의학교육에 표준화환자를 이용하는지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